

‘전설 자체’ 조코비치, 마스터스 통산 40승



▲ ATP 투어 몰렉스 파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살아 있는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최초로 통산 40번째 정상에 서며 또다시 새 역사를 썼다.

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는 전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TP 투어 몰렉스 파리 마스터스 단식 결승에서 그리고르 디미트로프(17위·불가리아)를 2대0(6대4 6대3)으로 제압하며 이 대회에서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단식 통산 40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단식에서 36회 우승으로 뒤를 잇는다. 마스터스 1000 시리즈는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 윌블던, US 오픈의 4대 메이저 다음 등급에 해당하며 1년에 아홉 차례 열리는 특급 대회다.

조코비치는 올해 최고 중의 최고임을 증명하고 있다.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을 휩쓸며 통산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24회로 늘렸고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서는 8월 신사내티 마스터스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올해 7월 윌블던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에게 2대3으로 패해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아쉽게 놓쳤지만 이후 18연승을 달리고 있다.

친구 이름 새긴 공으로, 눈물의 끝내기 이글 퍼트

5m 떨어진 홀컵을 바라보던 에릭 판루엔(33·남아프리카공화국)이 침착하게 퍼트에 나섰다. 마지막 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얻은 이글 기회였다. 성공하면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JT’라고 적힌 공은 테구루루 구르더니 ‘땡그랑’ 소리를 내며 홀컵에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판루엔은 주먹을 불끈 쥐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듯 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째를 거둔 순간이 감격스러웠지만 그보다 병마와 싸우는 친구의 얼굴이 더 먼저 생각났기 때문이다.

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판루엔은 이날 멕시코 로



▲ PGA투어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에릭 판루엔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golfdigestme.com

스카보스의 엘카르도날(파 72·7452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총상금 82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27언더파 261타로 우승했다. 이날 우승으로 그는 2021년 8월 배러쿠다 챔피언십 이후 2년 3개월 만에 투어 통산 2승을 기록했다.

판루엔은 우승 인터뷰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렇그렁한 얼굴로 피부암 투병 중인 대학 친구 존 트라사마의 건강을 걱정했다. 판루엔은 “친구 이니셜인 ‘JT’를 공에 새겨놓고 경기를 펼쳤다.”며 “인생에는 골프보다 더 큰 일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판루엔은 “샷을 할 때마다 그가 생각났다. 사실 오늘 우승은 (친구의 아픔보다) 큰 의미는 없다.”라며 울먹였다.

우즈,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 캐디 나서



▲ 아들의 캐디로 나선 타이거 우즈가 골프 백을 메고 코스를 걷고 있다. 사진=TWRegion 캡처

타이거 우즈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의 캐디로 나서 필드 복귀가 머지않았음을 알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프위크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들은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주니어 골프 대회에 아들 찰리의 캐디로 나선 우즈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우즈가 아들의 백을 어깨에 메고 코스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우즈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심지어 내리막을 걸을 때도 평지를 걷는 듯 편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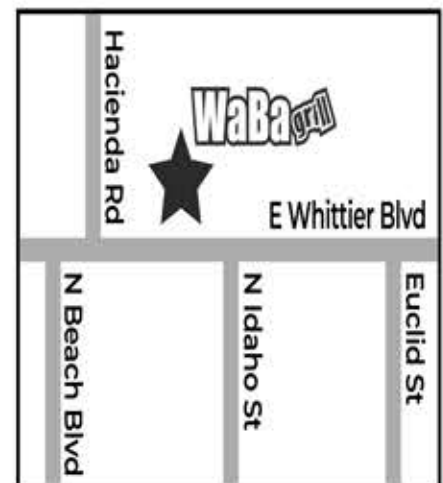
우즈는 지난 4월 마스터스를 마친 뒤 오른쪽 발목 복사뼈 염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염증은 2021년 2월 교통사고 때 입은 복합 골절상 후유증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목숨을 겨우 건진 2021년 교통사고에서 기적같이 재기했지만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대회 때마다 질뚱거리며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였고, 4월 수술 이후에는 대회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즈는 최근 공개 레슨 현장에서 폴스윙하는 광경이 포착됐고, 아들 찰리와 동반 라운드도 하는 등 필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의 복귀전은 다음 달 열리는 타이거 우즈 재단 추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또는 가족 골프 대항전 PNC 챔피언십이 유력하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